

#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누가 달아줄까...

## 세월호 참사

팽목항 대기실 빈자리 늘었지만  
실종자 가족들 애타는 기다림 여전  
64개 객실문 모두 개방 수색 박차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진도군 실내체육관과 팽목항 실종자 대기실에는 35명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자식(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침몰 당시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협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애들 등록금으로 써. 나는 지금 학생들 구하러 가야해"라고 전한 뒤 소식이 끊긴 양대홍 사무장의 어머니는 사건 발생 21일째를 맞는 이날도 자식의 사고 소식조차 전해 듣지 못하고 아들이 '카네이션'을 사들고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버이날 카네이션은 누가 달아줄까 = 실종된 승무직 선원 양대홍 사무장의 가족들은 이날 현재까지 어머니(86)에게 막내 아들의 사고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인 데다 청력을 대부분 상실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에게 사고 소식을 차마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 사무장의 형 석환씨는 "3남 2녀 중 막내인 동생 대홍이는 워낙 효성이 지극해 항상 어머니 사랑을 독차지 했다"면서 "(동생의) 사고 소식을 전했다간 어머니까지 잃게 될까봐 지금껏 아무 말씀도 못드리고 있어 가족 모두가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바쁜 일정을 쫓아서 어버이 날이면 카네이션을 사들고 어머니가 계신 형님 집에 왔던 터라 올해도 어머니께서는 대홍이가 꽃들고 찾



팽목항서 희생자 넋 위로 6일 오전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주최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행사를 마친 스님과 신도, 가족들이 방파제 주위를 돌며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를 어떡해야할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나마 양 사무장에게는 형제가 남아있지만, 대개 자녀를 1~2명 낳은 것으로 알려진 실종 학생들의 부모는 영원히 카네이션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늘어나는 빈자리...여전히 자식 기다리는 부모들 = 세월호 침몰 21일째를 맞는 6일 진도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실종자 가족 대기실은 빈자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16일 사건이 발생한 뒤 이날까지 총 267명의 시신이 수습되면서 상당수 유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데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자원봉사자의 숫자도 대

폭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35명의 가족들은 여전히 실종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팽목항 인근 갯바위에 실종자 학생의 부모가 자식의 귀환을 염원하며 놓아둔 운동화가 발견됐다. 운동화 옆면에는 "막내야, 친구가 예쁜 신발 사왔어. 엄마, 인니도, 오빠도 모두 보고 싶어. 기다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수색상황, 64개 객실 문 모두 개방... 시신 5구 수습, 실종 35명 =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체 내 111개 공간 가운데 64개

객실의 문을 모두 개방하고 수색을 하고 있다. 합동구조팀은 그동안 복잡한 진입로와 장애물 등으로 3층 중앙부 좌측 객실 3곳의 문을 열지 못했다. 합동구조팀은 오는 10일까지 재확인이 필요한 객실들과 화장실, 로비, 매점 등 공용공간 47곳을 수색, 실종자 전원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선체 수색작업을 하던 민간 잠수사 1명이 사망, 수색 작업에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합동구조팀은 이날 시신 5구를 추가로 인양했다. 이로써 이날 오후 7시 현재 사망자는 267명이며 실종자는 3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기자 노트

### 소방당국의 해명과 진실 사이



윤현식 정치부 기자

왜 소방헬기는 팽목항에서 대기한 채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을까. 전국에서 출동지령을 받고 날아온 소방헬기는 모두 15대였다. 119에 첫 신고한 고 최덕하(17) 군은 물론 헬기 프로펠러 소리를 듣고 안도했던 탑승객들은 119 대원들이 자신들을 구조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

심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헬기는 사고 현장 후야 현장에 도착, 인명 구조에 투입되지 못했다. 본초를 다뤄야 할 119 소방헬기의 현장 도착 시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첫 신고를 접수한 오전 8시52분, 부질 없는 가정이지만, 이때 소방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했다면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인명 구조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다.

시간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었다. 먼저 최근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전남소방본부에 '출동 시간'을 문의했다. 참사 당일 근무자는 핸드폰을 꺼둔 채 연락이 안 됐고, "관련 기록이 모두 압수돼 모른다"는 관계자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몇 차례 다시 물었지만 답은 같았다.

이후 광주 및 전남소방본부에 알아본 결과, 지난달 16일 오전 9시35분에 서야 출동 지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신고 접수 후 43분이 지난 시점이다. 전남을 제외하곤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한 광주소방본부 헬기는 10시37분에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전남소방본부 측은 대기 중인 고위 간부

들을 데리고 가줄 것을 부탁, 출동 도중 전남도청에 들렀기 때문이다. 또 전남소방본부만의 대응으로는 벽산 대규모 재난이라는 점에서, 소방방재청에 뒤늦게 인근 시·도소방본부에 출동 지령을 내린 배경을 물었다. 4119, 5552, 5146, 8916, 상황실, 대변인실, 긴급구조통제단, 구

조과 등은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 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이들 기관들은 보도가 나간 뒤에야 해명자료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52분 신고를 받고 10시10분 현장에 도착한 전남소방본부 헬기, 전남도청을 경유하는데 5분이 더 소요됐을 뿐이라는 광주소방본부 헬기, 오전 9시26분에서야 보고를 받고 9분이 지나 시·도본부에 출동 지시를 한 소방방재청 등, 과연 이들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이들은 정부부처의 무능력함과 함께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것이 너무도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익 최우선 구조, 청탁과 비리, 책임 떠넘기기, 관료주의, 부처 이기주의 등이 그것이다.

사고 당시를 하나하나 되짚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의 대처를 반성하고 바로 잡아야 비로소 국가를 믿고 기다렸던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chadol@kwangju.co.kr

## 민간잠수사 1명 사망... 전문의료진 현장에 없어 늑장 구호

### 뒤늦게 바지선에 의료진 투입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구조·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1명이 사망했다.

6일 오전 6시 5분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민간 잠수사 이광욱(53)씨가 수중 수색 작업 중 의식을 잃어 헬기로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50대 베테랑 잠수사인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7분 물속에 들어간 뒤 5분 만에 통신이 끊어졌다. 합동구조팀은 수심 24m 지점에서 통신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호흡 상태가 급속히 나빠지고 연락이 끊기자 현장에 있던 소방당국 잠수요원 2명을 투입해 이씨를 바지선 위로 끌어올려 구급조치를 했다. 이씨는 동료에 의해 20여분 만에 물 위로 끌

어올렸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오전 6시 44분 헬기로 이송, 목포 한국병원에서 7시 36분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은 "뇌 속에 공기가 차 있는 '기뇌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피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았다"면서 "기뇌증은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고 압력 차이가 발생하는 다이빙과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화력발전소와 댐 건설에도 참여했던 베테랑 '산업잠수사'로 사고 해역에 처음 투입됐다. 일각에서는 기존 잠수사 인력의 피로도 가 심한 상황에서 해역 주변에 대한 적응과 정 없이 대체인력으로 무리하게 투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범정부 대책본부가 실종자 가족 등의 요구로 잠수

사에 대한 구조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이씨 긴급 구조 조치와 상태를 확인할 전문 의료진은 당시 바지선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조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 조치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에서 잠수사들이 머무는 바지선에는 갑압 체임버와 간단한 구조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외에는 의료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는 잠수사 희생 뒤에야 바지선에 의료진 투입을 결정, '사후약방문(死後藥方)'식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명석 대책본부 공동대변인은 "바지선에 군의관과 보건복지부 소속 의사들을 투입해 입수 전 혈압, 맥박 등을 더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명의 도용 미납요금 조회해 줘" 난동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했으니, 미납요금을 조회해 달라"며 난동을 피운 50대 취객이 경찰서행.

○...6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1)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A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던 여종업원(30)에게 "왜 (미납요금) 조회가 안되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이씨는 "누군가 내 명의를 도용했으니, 미납요금을 조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여종업원이 "조회 결과, 가입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소란을 피웠는데, 경찰에서 "(여종업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회설수술.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故 김대현군 광주에 빈소 마련...조문 줄이어

### 친인척 대부분 광주 거주

### 김군 부모 하루종일 눈물만

세월호 침몰사고 21일째인 6일 고(故) 김대현(안산 단원고 2)군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시 북구 동림동 운암한국병원엔 운종일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난 5일 시신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김군의 부모는 어버이 날(8일) 아들을 저 먼 세상으로 홀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연방 눈물을 쏟아냈다.

김군의 아버지는 "잘해 준 것도 없는데, 어쩌다 내가..."라며 아들의 영정사진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문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소리로 나지 않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느냐"며 "내 아들"을 연신 부르다 주저앉았다.

조문객들의 행렬도 하루 종일 이어졌다. 이날 빈소를 찾은 조문객 수는 대략 100여 명. 어린 학생들과 함께 빈소를 찾은 조문객도 눈에 띄었다. 광주시 자원봉사자들은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에게 노란 리본을 나눠줬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안산시·광주시·광주시 북구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30명은 유족들을 대신해 장례 절차를 지원했다.

유족들이 친·인척들이 모여 있는 광주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한 탓이다. 발인은 8일 오전 7시 운암한국병원에서 진행되며, 시신은 광주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뒤 경기도 안산 하늘공원에 안치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주)오천경매 H.P 010-3605-5000

물건: 부동산 경매 진행 물건  
기간: 1년~2년 정도  
방식: 단독, 공동투자 방식  
자본: 1억원 이상  
수익: 상담후 결정

##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분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